

최근 2년간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게재논문 분석-연구 동향, 실험증재, 연구의 근거등급을 중심으로

신현숙¹ · 현명선² · 구미옥³ · 조명옥⁴ · 김숙영⁵ · 정재심⁶ · 정금희⁷ · 서문경애⁸ · 손연정⁹

¹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 동서간호학연구소 조교수, ²아주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³경상대학교 간호대학 · 건강과학연구원 노인건강연구센터 교수, ⁴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⁵차 의과학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⁶울산대학교 임상전문간호학 부교수, ⁷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⁸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⁹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Focused on Research Trends, Intervention Studies, and Level of Evidence in the Research

Shin, Hyun-Sook¹ · Hyun, Myung-Sun² · Ku, Mi-Ok³ · Cho, Myung-Ok⁴ · Kim, Sook-Young⁵
Jeong, Jea-Sim⁶ · Jeong, Geum-Hee⁷ · Seomoon, Gyeong-Ae⁸ · Son, Youn-Jung⁹

¹College of Nursing Science, East-West Nursing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Seoul

²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Suwon

³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⁴Department of Nursing, Donggeul University, Busan

⁵Division of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Health Science, CHA University, Seongnam

⁶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Ulsan University, Ulsan

⁷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Chuncheon

⁸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Seoul

⁹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was done to analyze recent trends in nursing research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by focusing on the content of nursing interventions and their level of evidence. **Methods:** A total of 209 studies published between 2007 and 2008 were reviewed using analysis criteria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Results:** The number of quantitative studies was greater than that of qualitative studies. There was a slight increase in the number of qualitative studies and studies including elderly populations, which reflects the recent population trend in Korea. Mor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with a low risk of bias were needed to support more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Concerning the low rate of ethical consideration, stricter application of research ethics needs to be encouraged.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e recent trends in nursing research and the direction of nursing research and review in the Journal.

Key words: Publications, Nursing research, Research design, Research methodology, Evidence based practic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KAN)은 한국

간호과학회가 발간하고 있는 간호계를 대표하는 학술지로서 1970년에 한국 최초의 간호학술지로 창간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 간호학의 학문적인 발전뿐 아니라 연구, 이론, 실무, 교육 분야에서의 발전을 주도해오고 있으며, 2008년 10월호부터 공식적인 명칭이 대한간호학회지에서 JKAN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어 : 논문 출판, 간호연구, 연구설계, 연구방법론, 근거중심 실무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yun, Myung-Sun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5 Woncheon-dong, Yeongtong-gu, Suwon 442-721, Korea
Tel: 82-31-219-7014 Fax: 82-31-219-7020 E-mail: mhyun@ajou.ac.kr

투고일 : 2009년 12월 14일 심사회의일 : 2009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월 18일

본 학회지는 2000년도에 KoreaMed에 등재된 것을 시작으로 2001년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2003년에는 Index Medicus, 2004년도에는 Medline, Scopus에 등재되어 본 학술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2008년에는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에 등재되어 우수한 국제적인 학술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한 분과학문의 발달은 그 학문의 지식체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 간호학문의 지식체의 생성 및 축적은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간호학의 독특성을 반영하고 통합한다(McEwen, 2007). 이에 따라 간호학의 지식체 확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체의 개발뿐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지식체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지식체의 생성 방향을 조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Suh et al., 2007).

최근에 간호학문에 축적된 지식체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JKAN에 출판된 논문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Choi 등(2000)이 창간호부터 1999년도까지의 논문을 분석한 것이 있으며, 논문의 주요어를 중심으로 분석(Jeong, Ahn, & Cho, 2005), 간호학 지식분류 유형에 따른 분석(Jang, 2005), 통계기법을 중심으로 분석(Kang, 2002), 2004년도부터 3년간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Suh, 2007)가 있다. 한편, 국외의 경우를 보면, 2001년 2월에서 2002년 5월까지 SSCI에 등재된 상위 42개의 간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국제적인 경향에 대해 분석한 논문(Dougherty, Lin, McKenna, & Seers, 2004)과 2001년부터 2년간 Journal of Clinical Nursing에 게재된 논문을 방법론과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Webb, 2003)이 있으며, 2000년부터 6년간 Impact Factor가 높은 상위 10위의 간호 학술지를 대상으로 방법론과 근거의 유형 및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Mantzoukas, 2009)가 있다.

이상과 같이 발표된 논문들의 분석을 통해 간호학문의 지식체 발달의 경향과 방법론을 파악하고 추후 지식체 발달의 방향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간호학문의 발달을 가져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학회지가 SSCI 및 SCI-E에 등재된 현 시점에서 국제적 수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므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간호연구 및 지식체 발달의 현재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회지의 발전 방향과 게재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한 논문심사의 방향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한편 간호학은 실무중심의 학문이기 때문에, 간호이론, 연구, 실무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간호실무의 발전은 연구로부터 나온 지식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특히 실험

구에서 시도되는 실험중재로부터 나온 경험적 지식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본 학회지에 발표된 실험중재 연구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간호연구에 이론적인 기틀이 적용되었는지 분석을 통해 간호연구가 얼마나 이론을 기반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Peterson, 2009). 최근 보건의료의 전 분야에서는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지식체에 근거하여 최상의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근거기반실무(Evidence based practice, EBP)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향에 부응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근거 등급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간호학 논문의 분석을 시도한 연구를 보면, 연구의 주요 개념이나 주제, 연구방법, 간호학 지식유형, 주요 탐구대상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주요 경향과 특성을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2년간(2007년-2008년) JKAN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과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며, 아울러 실험중재 및 연구의 근거등급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현재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학문의 발달을 위한 간호연구의 방향 및 본 학회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최근 2년간 JKAN에 게재된 논문을 본 연구진이 개발한 분석틀에 따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분석 대상

JKAN은 한국간호과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간호학 이론, 실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연구를 게재하고 있으며, 연 6회 발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은 JKAN에 2007년 2월부터 2008년 12월(37권 1호-38권 6호)까지 게재된 총 논문 209편이다.

3. 분석 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틀 중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 연구 유형에 따른 각 특성에 대한 분석틀은 논문 분석 연구를 수행한 선형 문헌(Choi et al., 2000; Mantzoukas, 2008; Suh et al.,

2007)의 고찰을 통해 도출되었다. 그리고 연구의 근거등급에 관한 선행 문헌(Webb, 2003)을 통해 연구의 근거등급에 관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구성된 분석틀은 본 연구진의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 양적 연구, 질적연구, 연구의 근거등급 분석 등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 분석은 논문의 유형, 연구 유형, 게재논문의 윤리성 분석을 포함하였다. 게재논문의 윤리성은 분석대상 논문에서 기관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통과, 서면동의, 구두동의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중복 수행 시 가장 높은 수준으로(가장 높은 수준은 IRB, 다음은 서면동의, 구두동의 순) 코딩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양적연구의 분석은 연구 설계, 개념적 틀, 표본 수 산정기준, 자료 수집 방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도구사용 허가, 자료 분석 방법의 분석을 포함하였다. 이 중 타당도는 사용된 도구에 대한 내용타당도, 준거타당도, 구성타당도와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을 경우 타당도를 제시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실험연구에서 적용된 실험중재를 분석하였는데 실험중재를 연구자가 새롭게 중재를 개발한 경우와 기존의 중재를 수정 보완하여 적용한 경우로 분류하였고, 실험중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셋째, 질적연구는 연구 설계, 철학적인 배경의 진술, 연구자의 훈련, 자료 수집 방법, 연구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근거등급은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에 의한 기준을 Park (2006)이 간호학에 적합하게 수정한 근거등급에 따라 분류하였다. SIGN은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왔던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에 의해 제시된 근거등급이 각 연구의 방법론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점이 부족함 단점을 보완하여 제시된 것으로 연구의 설계에 초점을 두어 등급을 분류한다. Park (2006)에 의해 수정된 근거등급은 기존의 SIGN 분류 기준에 간호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사실험설계에 대한 등급을 추가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보면, 1++에서부터 4까지 7개의 등급으로 연구논문들을 분류하고 있다. 등급 1++는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연구들에 대한 질 높은 메타분석 및 체계적 고찰, 편중이 매우 낮은 RCT 연구들이 속한다. 등급 1+는 잘 수행된 메타분석 및 체계적 고찰, 편중이 낮은 RCT 연구들, 등급 1-는 메타분석, 체계적 고찰이거나 편중이 높은 RCT 연구, 등급 2++는 RCT 외의 실험연구나 환자대조군 또는 코호트 연구들에 대한 질 높은 체계적 고찰, 혼동변수나 편중의 위험이 매우 낮으며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은 RCT

외의 실험연구, 환자대조군 또는 코호트 연구들이 속한다. 등급 2+는 혼동변수나 편중의 위험이 낮고 인과관계 가능성이 보통 정도인 RCT 외의 실험연구, 환자대조군 또는 코호트 연구, 등급 2-는 혼동변수나 편중의 위험이 높고 인과관계가 아닐 위험성이 있는 RCT 외의 실험연구, 환자 대조군 및 코호트 연구가 속한다. 3은 비분석적 연구로 사례보고, 사례연구 등이 속하며, 4는 전문가 의견이 속한다. 이밖에 본 연구에서 근거등급에 적용한 세부 기준을 보면 대조군을 둔 유사실험연구에서 집단간의 사전동질성 검정결과 동질성이 검정되고 외생변수 통제가 잘 되면 2++로 등급을 배정하였으며, 외생 변수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로 등급을 배정하였다. 단일군 전후설계의 경우에는 2-로 등급을 배정하였으며, 조사연구 및 질적연구는 등급 3으로 배정하였다.

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07년도 게재된 논문의 분석은 2008년 10-11월, 2008년도 게재된 논문의 분석은 2009년 7-8월인 총 4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본 연구진이 개발한 분석 틀에 따라 일차적으로 각 연구자가 논문을 일차분석을 하였으며, 이후 연구책임자가 일차분석 결과를 검토하면서 재분석하여 일차분석과의 일치도를 확인하였으며,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 및 수정함으로써 분석을 완성하였다.

연구 결과

1.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 분석

논문 유형은 연구자의 일반 논문이 58.4% (122편)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비 수혜 논문이 35.9% (75편), 학위논문이 5.7% (12편)이었다. 연구유형은 양적 연구가 84.7% (177편)로 가장 많았으며, 질적 연구는 14.4% (30편)이었으며, 종설이 1.0% (2편)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의학적인 질병이 없는 일반인이 49.3% (103편), 환자는 23.4% (49편), 의료인 13.9% (29편), 가족이 2.4% (5편)이었다. 일반인 중에는 성인이 44편, 노인이 34편, 아동 및 청소년은 24편 순이었다. 환자 중에는 성인이 31편, 노인은 13편, 아동 및 청소년이 3편 순이었다. 의료인 중에서는 간호사는 25편, 간호학생이 4편이었다. 문헌 및 논문은 11편, 간호수가 3편, 보건 의료 정보 3편, 의리기관이 2편, 기타 동물 및 연구 도구 등이 4편이었다.

논문에서 연구자가 연구 윤리를 준수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수행에 대해 구두동의를 받은 논문이 47.9% (91편)로 가장 많았으며, 서면동의를 받은 논문은 25.3% (48 편)이었으며, IRB에서 절차를 밟아 연구 수행의 허가를 받았다고 기술한 논문은 8.4% (16편)에 불과했다. 반면에 연구 윤리에 관해 보고를 하지 않은 논문은 18.4% (35편)였다(Table 1).

2. 양적 연구 분석

1) 전반적인 특성 분석

양적 연구를 연구설계, 개념적 기틀 제시, 표본 수 산정기준 제시, 자료 수집 방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보고, 도구사용에 대한 허가,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양적 연구는 총 177편이었으며, 연구설계는 조사연구가 52.5% (93편)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실험연구로 32.2% (57편)이었다. 실험연구에는 유사실험 연구가 25.4% (45편)로 가장 많았으며, 원시실험연구(단일군 전후설계)가 4% (7편), 순수 실험연구가 2.8% (5편)이었다. 순수실험 연구의 경우 이중맹검을

하면서 할당노출 차단을 한 논문이 1편, 단일 맹검을 하면서 할당노출차단을 안한 논문이 1편, 맹검과 할당노출차단 모두 안한 논문이 3편이었다. 또한 도구개발을 수행한 방법론적 연구 10.2% (18편), 메타분석 3편, 이차 자료를 분석한 연구가 2편, 기타가 4편이었다.

양적 연구에서 개념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은 23.7% (42편)이었으며, 그 중 간호학 이론에 근거하여 개념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이 7편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Roy와 Parse 이론이 각 1편, 개념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개념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이 1편, 그밖에 간호학자에 의해 개발된 중범위이론을 근거로 개념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이 4편이었다. 비간호학 이론을 적용한 것을 보면, 인지행동이론에 근거한 기틀이 3편, 자기효능감 이론이 4편, 변화단계 이론이 2편이었다.

표본 수의 산정기준을 제시한 논문은 58.7% (88편)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설문지가 57.6% (10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리적 측정이 18.6% (33편), 면담이 10.2% (18편), 문헌이나 논문 등의 분석이 6.2% (11편), 관찰이 2.3% (4편)였다. 델파이 방법과 의무기록지 분석이 각 2편이었으며, 기타 간호활동

Table 1. Overall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N=209)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ontents	n	%	
Manuscript type	Research paper		122	58.4	
	Grant		75	35.9	
	Thesis or dissertation		12	5.7	
Research type	Quantitative research		177	84.7	
	Qualitative research		30	14.4	
	Review paper		2	1.0	
Research participants	Well participants	Children, adolescents	24	11.5	
		Adults	44	21.1	
		Elderly	34	16.3	
		Overall aged subjects	1	0.5	
		Subtotal	103	49.3	
	Ill participants	Children, adolescents	3	1.5	
		Adults	31	14.8	
		Elderly	13	6.2	
		Overall aged subjects	2	1.0	
		Subtotal	49	23.4	
	Health care provider	Nurse	Nurse	25	12.0
			Nursing students	4	1.9
		Documents	Literature & paper	11	5.3
			Family	5	2.4
			Administration	Nursing cost	3
Informatics			Information	3	1.4
Organization			Institutions	2	1.0
Others	Animal, instrument, etc.	4	1.9		
Ethical consideration*	Verbal consent		91	47.9	
	Written consent		48	25.3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16	8.4	
	No reported		35	18.4	

*Non applicable cases excluded.

조사도구, 보건교과서, 자서전 등을 분석한 논문이 4편이었다.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에 대하여 보고한 논문이 80.1% (129편), 보고하지 않은 논문이 19.9% (32편)이었으며, 도구의 타당도에 대하여 보고한 논문이 42.1% (64편), 보고하지 않은

논문이 57.9% (88편)이었다. 또한 도구 사용에 관해 도구 개발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기술한 논문은 9편(6.6%)뿐이었으며, 대부분의 논문(127편, 93.4%)에서 기술하지 않았다.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한 분석에서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으

Table 2. Characteristics of Quantitative Research

(N=177)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ontents	n	%
Design	Experimental study	True experimental study	5	2.8
		Quasi experimental study	45	25.4
		Pre-experimental study [†]	7	4.0
		Subtotal	57	32.2
	Survey	Methodological study	18	10.2
		Meta analysis	3	1.7
		Secondary data analysis	2	1.0
		Others	4	1.9
Conceptual framework*	Presented		42	23.7
	Not presented		108	61.0
Criteria for Sample size*	Yes		88	58.7
	No		62	41.3
Data collection method		Questionnaire	102	57.6
		Physiological measure	33	18.6
		Interview	18	10.2
		Literature analysis	11	6.2
		Observation	4	2.3
		Delphi	2	1.1
		Chat review	2	1.1
		Others	4	2.3
Reliability of instrument*	Reported		129	80.1
	Not reported		32	19.9
Validity of instrument*	Reported		64	42.1
	Not reported		88	57.9
Permission for instrument use*	Reported		9	6.6
	Not reported		127	93.4
Data analysis method [†]	Descriptive statistics		175	98.9
		Parametric statistics		
		t-test	93	52.5
		ANOVA	48	27.1
		Multiple range test	32	18.1
		Repeated measure ANOVA	14	7.9
		ANCOVA	15	8.5
		Correlation	58	32.8
		Multiple regression	35	19.8
		Logistic regression	8	4.5
		Factor analysis	7	3.4
		Discriminant analysis	9	4.3
		Canonical analysis	5	2.4
		Lisrel	3	1.4
		Path analysis	4	1.9
	Non parametric statistics	Chi square	43	24.3
		Fisher's exact	16	9.0
		Mann-Whitney	32	18.1
		McNemar	12	6.8
		Kruskal Wallis	3	1.4
Wilcoxon's		3	1.4	
Others		Multidimensional scaling	1	0.5

*Non applicable cases excluded; [†]Multiple responses; [‡]Single group pre-post test.

며, 그 결과 거의 모든 양적 연구들에서 평균값 및 표준편차와 빈도를 파악하는 기술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175편, 98.9%). 그 다음에는 t-test 52.5% (93편), Correlation 32.8% (58편), Analysis of variance (ANOVA) 27.1% (48편), Multiple regression 19.8% (35편),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8.5% (15편), Repeated measure ANOVA 7.9% (14편) 순이었다. 그 밖에 Logistic regression, Factor analysis, Discriminant analysis, Canonical analysis, Lisrel, Path analysis 등이 있었다. 비모수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Chi-square test 24.3% (43편)로 가장 많았으며, Mann-Whitney test 18.1% (32편), Fisher's exact test 9% (16편), McNemar test 6.8% (12편) 순이었으며, Kruskal Wallis, Wilcoxon's test 등이 있었다(Table 2).

2) 실험 중재의 분석

실험연구는 총 57편이었으며, 각 연구에서 적용한 실험중재의 출처를 보면, 연구자가 중재를 개발한 경우가 50.9% (29편)였으며, 기존의 중재를 수정 보완하여 적용한 경우가 49.1% (28편)였다.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이 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집단 교육(8편)이었다. 집단 교육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운동 및 식습관, 혈액투석 환자의 가려움증, 신생아 돌보기, 심혈관질환 환자의 영양, 심폐소생술교육, 청소년의 자살폭력 예방, 환경교육, 학령전기 아동의 잇솔질 교육 등 다양했다. 그 다음으로

는 프로토콜을 개발한 경우(비만관리, 증상관리, 다리 마사지, 모유수유 증진, 사례 관리)가 5편이었으며, 웹 기반 교육 프로그램(죽음, 건강관리, 건강증진)을 개발한 연구가 3편이었다.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걷기, 요부강화 운동)이 3편이었으며, 간호술(감각자극, 수면을 위한 간호술)을 개발한 연구가 2편이었으며, 보완 대체요법(경락 마사지)은 1편이었다. 그밖에 연구자가 희망, 자기관리, 병식 지향, 인지행동, 지지적 간호중재 등을 개발한 연구가 있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한 중재로는 운동 프로그램(걷기, 기 체조, Tai chi 등) 9편, 대체요법(향요법, 수지침, 경락 마사지 등) 5편, 교육 프로그램 3편, 지지적 간호 2편, 간호술 2편, 재활 프로그램(사회적 기술 훈련) 2편 등이었다(Table 3).

3. 질적 연구의 분석

질적 연구는 총 30편이었으며, 연구설계는 현상학적 연구가 36.7% (11편), 근거이론 방법이 20% (6편), Q 방법론이 20% (6편) 순이었다. 그 밖에 내러티브 분석 2편, 포커스 그룹 방법 1편, 질적 내용분석 2편, 개념분석 2편 등이었다. 철학적 입장을 제시한 논문이 60.7% (17편)이었으며, 연구자 훈련에 관해 기술한 논문이 32.1% (9편)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심층 면담이 76.7% (23편)로 가장 많았으며, 관찰, 문헌고찰이 각 2편이었으며, Q 방법론 연구인 경우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Table 3. Analysis of Intervention Studies (N=57)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ontents	n	%
Intervention sources	New interventions	Education (individual, group)	9	15.8
		Program protocol	5	8.8
		Web based teaching	3	5.3
		Nursing therapeutics	2	3.5
		Exercise	3	5.3
		Alternative therapeutics	1	1.8
		Others	6	10.5
		Subtotal	29	50.9
	Existing interventions	Exercise	9	15.8
		Alternative therapeutics	5	8.8
		Education	3	5.3
		Supportive care	2	3.5
		Nursing therapeutics	2	3.5
		Rehabilitation (social skill training)	2	3.5
		Counseling	1	1.8
		Others	4	7.0
			Subtotal	28

Table 4.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N=3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Design	Phenomenology	11	36.7
	Grounded theory	6	20.0
	Narrative analysis	2	6.7
	Focus group	1	3.3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2	6.7
	Concept analysis	2	6.7
	Q-Methodology	6	20.0
Philosophical background*	Yes	17	60.7
	No	11	39.3
Researcher training*	Yes	9	32.1
	No	19	67.9
Data collection method	In-depth interview	23	76.7
	Observation	2	6.7
	Questionnaire	2	6.7
	Literature search	2	6.7
	Others	1	3.3
Reliability	Reported	20	66.7
	Not reported	10	33.3
Validity	Reported	21	70.0
	Not reported	9	30.0

*Non applicable cases excluded.

Table 5. Level of Evidence of Research (N=209)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Evidence level	1++	0	0.0
	1+	2	1.0
	1-	3	1.4
	2++	35	16.8
	2+	6	2.9
	2-	12	5.7
	3	151	72.3
	4	0	0.0

논문이 2편이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보고한 논문은 66.7% (20편)이었으며, 타당도에 관해 보고한 논문은 70% (21편)이었다(Table 4).

4. 연구의 근거 등급 분석

연구의 근거의 등급을 SIGN에 의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1++에 해당되는 논문은 없었다. 등급 1+는 2편, 등급 1-는 3편, 등급 2++는 35편, 등급 2+는 6편, 등급 2-는 12편이었다. 등급 3은 151편이었으며, 등급 4는 없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2년간 JKAN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 실험중재, 연구의 근거등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분석으로 현재 간호학문의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보건의로 분야에서 근거기반실무가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험중재와 연구의 근거등급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간호학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또한 본 학회지의 질적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 및 심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논문들의 전반적인 특성 분석

최근 2년간 JKAN에 게재된 논문은 총 209편이었으며, 연간 104편이었다. 이는 2003년에서 2006년 기간에는 연 122편이 게재되었던(Suh et al., 2007) 것과 비교해보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학회지의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008년 초부터 게재되는 논문 편수를 제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유형에서 연구비 수혜논문이 35.9%를 차지하고 있어 선행연구(Suh et al., 2007)에서 보고한 30.6%보다 다소 증가하

였다. 이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수혜논문에 대해 연구성과물을 SCI급 이상에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추세에 따라 이전에는 연구성과물을 외국 학술지에 게재하려는 비율이 높았었는데, 본 학회지가 2008년도부터는 SSCI 및 SCI-E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려는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연구비 수혜 논문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문유형에서 양적 연구 대 질적 연구 비율이 84.7% 대 14.4%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1990년대에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선행연구(Choi et al., 2000)에서는 81.2% 대 11.2%,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논문을 분석한 선행연구(Suh et al., 2007)에서는 83.9% 대 9%의 비율을 나타낸 것과 비교해볼 때 질적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경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출간되는 학술지의 경우를 보면, 2000년부터 6년간 Impact Factor가 높은 상위 10위의 간호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분석한 연구(Mantzoukas, 2009)에서는 양적 연구 대 질적 연구가 51% 대 37%로 보고를 하고 있어 이들 학술지와 비교 시 본 학회지에 질적 연구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Morse (2006)는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와는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본 학회지에 우수한 질적 연구의 게재가 격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본 학회지에 게재된 총설논문이 2편밖에 되지 않았으며, 메타분석 논문이 3편 있었지만 문헌수집과정이 체계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하여 체계적 고찰이 되지 못하였다. 총설논문에 대해 Webb (2003)은 임상에 있는 간호사에게 주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총설논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본 학회지에도 간호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치료법 및 중재에 관해 체계적으로 소개한 총설논문과 근거기반실무를 활성화하는데 기반이 되는 체계적 고찰 논문이 좀 더 많이 발표될 것이 요구된다.

연구 대상자는 의학적인 질병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49.3%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23.4%였다. 그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22.5%로 Choi 등 (2000)의 보고에서는 5.35%, Suh 등(2007)에서 보고한 11.3%보다 상당히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노인 인구 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 및 건강 전문인의 노인인구에 대한 관심 증가와 보건소 등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이 많아진 점 등을 반영하고 있음을 뜻하며, 이는 간호학문이 사회적 현상과 시대적 흐름에 적절하게 대비하고 부응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연구 대상자가 성인, 아동 및 청소년, 의료인, 가족 등 다양하였다. Suh

등(2007)은 JKAN에 게재된 연구논문에서 연구 대상자의 다양성에 대해 본 학회지의 특성이 불분명하며 학회지의 질적 향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본 학회지가 모든 간호학 영역의 회원을 대상으로 함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 생각되며, 연구 대상자의 다양성과 더불어 연구 분야의 포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연구 대상으로 간호수가 및 정보 등도 있어 최근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보건의료계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에서 서면동의서를 받았다고 기술한 논문이 23% (48편)이었다. 한편 IRB 심의 절차를 밟아 연구 수행의 허락을 받았다고 기술한 논문이 단지 7.7% (16편)에 불과하여, 간호학 연구에 있어서 IRB 심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연구수행과정에서 IRB 절차를 밟는 것이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회차원에서 IRB의 역할과 심사절차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간호연구자를 위한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적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IRB 심의를 통과한 연구만을 접수하는 투고 규정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단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2. 양적 연구 분석

양적 연구 중에서 조사연구는 52.5%로 가장 많았으며, 실험 연구는 32.2%였고, 그 중 순수실험 연구는 2.8%, 유사실험 연구는 25.4%로 Impact factor가 높은 상위 10위의 외국의 간호 학술지 분석 결과(Mantzoukas, 2009)에서 실험연구가 26%인 반면 순수 실험연구가 14%로 보고된 것과 비교해볼 때 순수 실험연구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간호학문은 대상자의 건강 및 안녕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대상자에게 최상의 간호실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거중심 간호실무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장 높은 등급의 근거를 제공하는 순수실험연구 즉 RCT 연구수행이 증가되어야 겠다(Mantzoukas, 2009; Rahm-Hallberg, 2006). 또한 대부분의 메타분석 연구는 RCT 논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간호학 연구 결과가 실무의 근거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순수실험연구 수가 크게 증가될 필요가 있다. 간호학 분야의 실험 연구에서 가장 흔한 유형인 유사실험연구는 대부분 무작위화(randomization)가 되지 않아 순수실험연구가 되지 못한 것이므로 연구설계 시 대상자를 무작위 할당할 수 있는 절차를 최대한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순수실험연구의 주요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맹검 및 할당노출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순수실험 연구 5편 중에서 맹검이나 할당노출을 수행한 연구가 2편이어서 본 학회지의 연구들이 실험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Walker (2005)는 실험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제방법의 하나로 이중맹검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맹검 절차는 호돈 효과(Hawthorne effect)와 후광 효과(Halo effect)를 통제하여 실험연구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본 분석에서 실험연구논문들은 연구설계에서 외생변수를 통제하기보다는 ANCOVA 등의 통계기법으로 통제를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실험연구 논문이 수준 높은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구설계에서부터 통제가 필요한 변수나 조건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것이 요구되며, 학회지논문 심사 시 연구 설계의 우수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Seers (2007)는 RCT 연구의 대안으로 time series design, action research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 time series design을 시도한 연구가 3편이 있어 다양한 설계가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학회지에 방법론적 연구가 18편, 메타분석 3편, 이차자료 분석이 2편으로 다양한 연구설계를 시도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었다.

본 분석에서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이 30.7%로 선행연구(Suh et al., 2007)에서 보고된 11.8%보다 상당히 증가하여 게재 논문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념적 기틀은 양적 연구에서 검증가능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중재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생변수들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한다(Rycroft-Malone, 2007; Wallin, 2009). 그리고 Fawcett (1999)는 간호학적인 개념적 기틀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분석 결과 개념적 기틀을 제시한 총 42편 중에서 간호학자에 의해 개발된 이론에 근거하여 개념적 기틀을 설정한 논문은 7편으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Roy나 Parse의 거대이론을 적용한 연구와 중범위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있어 발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비간호학적인 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간호학적인 개념적 기틀을 적용한 연구의 시도가 더욱 요구된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각 연구에서 개념적 기틀을 적용하였는지에 관해서만 파악을 하였으며, 개념적 기틀 혹은 이론이 얼마나 잘 연역적으로 각 연구에 적용이 되었는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 간호학문의 지식체의 확장을 위해 연역적인 접근이 필요한 연구 활동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조사에서 표본 수를 산정한 기준을 제시한 논문은 49.7%

로 선행연구(Suh et al., 2007)에서의 17%보다 상당히 증가하여 그동안 게재 논문의 질적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표본 수를 산정하기 위해 효과크기를 정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에 근거하거나 예비조사를 통해서 정하는 절차를 가지지 않은 연구가 상당수 있어서 타당한 효과크기 산정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이 요구되며, 본 학회지의 심사 시에도 표본 수 산정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자료 수집 방법은 설문지가 57.6%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양적 연구에서 조사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생리적 측정방법은 18.6% (33편)이었는데, 실험연구에서 사용한 논문이 22편, 조사연구에서 사용한 논문이 11편이었다. 본 조사에서 실험연구가 57편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험연구의 반영도에서는 중재의 효과에 대해 설문지뿐 아니라 생리적 측정을 통해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Webb (2003)은 실험연구의 경우 설문지를 통한 심리 사회적인 변수의 측정뿐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인 생리적인 측정을 통해 적용된 간호중재의 효과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구의 신뢰도에 대해 보고한 논문이 72.8%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뢰도를 보고하고 있었다. 반면에 도구의 타당도에 대해서 보고한 논문은 36.2%로 신뢰도 보고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Walker, 2005), 논문에 타당도에 대한 기술이 증가되어야겠다. 특히 본 분석에 따르면, 연구자가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수정 보완한 도구는 최소한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구에 대한 심사 시 타당도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야겠다.

도구의 개발자에게 도구의 사용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고 기술한 논문은 단지 9편(5.1%)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본 학회지의 심사규정에는 도구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은 연구자들이 도구 개발자로부터 도구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논문에 기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구 허가와 관련된 연구 풍토의 조성 및 연구자들의 인식을 높일 뿐 아니라 향후 학회지에서도 도구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분석에 사용한 통계기법에서 김정방법으로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성인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을 분석한 Park, Lee, Kim과 Cho (2008)의 연구에 비해 고급통계

의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Kang (2002)은 통계기법의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분석방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정(assumption)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본 분석결과 Chi square test가 24.3% (43편)이고, Chi square test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적용되는 분석방법인 Fisher's exact test가 9% (16편)로 나타나 통계분석방법 선택 시 가정검토가 증가되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연구에서 실험중재를 분석한 결과, 연구자가 실험중재를 개발하여 적용한 논문이 50.9%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 학회지에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간호중재 연구가 게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중재 내용을 보면 교육 프로그램 9편, 웹기반 교육프로그램 3편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운동 및 식습관, 혈액투석 환자의 가려움증, 청소년의 자살 폭력 예방, 심혈관 질환 환자의 영양 등 다양하였다. 이는 간호사의 주요 역할이 대상자가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를 위한 자기간호를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교육시키는 것이 라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웹기반 교육 프로그램은 웹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보건의료 지식과 기술에의 접근성을 확대하며, 이용자가 자신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내용에 접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선택권이나 효율적인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프로토콜 개발이 많았는데 비만관리, 건강관리, 사례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최근 근거기반실무의 확산에 따라 실무에서 필요한 프로토콜 개발의 필요성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운동중재는 기존 개발중재의 수정 보완 9편, 새로운 중재 개발 3편으로 많은 연구에서 시도되어 주요 간호중재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성인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을 분석한 Park 등(2008)의 연구에서 운동요법이 많이 시행되었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한편,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중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적용한 논문이 49.1%로 기존 중재를 수정 보완하여 실무에 보다 유용하도록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는 반복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Wallin (2009)은 반복연구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실무에서의 반복연구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향 요법, 수지침, 경락 마사지와 같은 대체요법이 5편으로 연구가 활발히 시행되었는데 이는 Park 등(2008)의 성인간호학회지 분석 연구에서 보완대체요법이 간호중재방법으로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 일치하

는 경향으로 최근에 대체요법에 관한 관심 증가의 추세와 간호 실무에서 이들 요법을 독자적 간호중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연구들의 근거 등급을 SIGN에 의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가장 높은 근거등급인 등급 1++에 해당되는 논문은 없어서 질이 높은 체계적 고찰이나 메타분석 및 질높은 순수실험연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연구에서 메타분석 및 체계적 고찰, 순수실험연구를 하는 경우에도 연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등급 2++가 35편으로 많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가 없었으므로 이들 연구는 모두 혼동변수나 편중의 위험이 매우 낮으며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은 유사실험연구에 해당된다. 이처럼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유사실험연구의 질이 높기는 하지만 최근 근거기반실무의 동향에 발맞추어 간호연구에서 높은 등급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자들은 좀 더 편중이 낮고 잘 통제된 순수실험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며(Mantzoukas, 2008) 본 학회지는 이러한 질적 논문들이 발표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겠다.

3. 질적 연구 분석

질적 연구는 30편이었으며, 근거이론 방법, 현상학적 연구, 내러티브 방법, 포커스 그룹, 개념 분석 등 다양한 질적 연구논문들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학적 입장을 제시한 질적 연구 논문이 58.1%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12.1%보다는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논문들에서 질적 연구의 근간이 되는 철학적 입장에 대한 기술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훈련에 대해 보고한 논문이 29%밖에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질적 연구의 신뢰도에 대해 64.5%의 논문에서 보고하고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Suh et al., 2007)에서의 33.3%보다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질적 연구의 단점이 연구자의 주관성이므로 수집된 자료가 연구 대상자의 의도와 의미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연구 결과가 얼마나 연구 대상자의 경험에 근거하는지에 관한 타당도와 연구 대상자의 경험에 일치하고 정확한 주제를 도출하였는지의 신뢰도가 질적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다(Davies & Dodd, 2002). 이에 본 학회지에서는 질적 연구 결과가 간호학과 간호실무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Dougherty 등(2004)은 건강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으

로 간호지식체도 범세계적인 관점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간호학술지도 국제적인 관점을 가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Webb (2003)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Journal of Clinical Nursing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의 연구자들과 다학제간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한 연구논문들의 발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JKAN도 국제적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시야 및 안목을 발전시켜 국외의 간호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는 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타학문 분야의 연구자들과의 연구 수행도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본 학회지의 Impact Factor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국문으로 출간이 되어 있어 국제적인 학술지로 더욱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벽을 극복할 것이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2년간 JKAN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간호학문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간호연구 및 학회지에서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2007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게재가 되었던 총 209편의 논문이었으며, 이를 본 연구진이 개발한 분석틀에 의해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 양적 연구 및 실험중재, 질적 연구, 연구의 근거 등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연구비 수혜논문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질적 연구에 비해 양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었다. 양적 연구에서는 개념적 기틀을 적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표본 수 산정 기준 제시나 통계분석의 가정 검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학회지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험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새롭게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연구가 많아 창의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학회지의 질적 수준을 더 높이고, 근거기반실무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근거 등급이 높은 연구논문의 발표가 격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회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학 연구 논문의 근거등급을 높이기 위해 순수실험연구(RCT) 및 질 높은 메타분석, 체계적 고찰 연구 수행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회지에 질 높은 논문의 게재를 위해 논문심사의 질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 이를 위하여 본 분석결과에 따라 연구설계, 도구 타당도, 표본 수 산정근거 등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 세부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학문의

정체성 정립 및 간호학문의 발전 방향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JKAN이 간호학문의 발전 방향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REFERENCES

- Choi, K. S., Song, M. S., Hwang, A. R., Kim, K. H., Chung, M. S., Shin, S. R., et al. (2000).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 1207-1218.
- Davies, D., & Dodd, J.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the question of rigor.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2*, 279-289.
- Dougherty, M. C., Lin, S. Y., McKenna, H. P., & Seers, K. (2004). International content of high ranking nursing journals in the year 2000.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 173-179.
- Fawcett, J. (1999). The state of nursing science: Hallmarks of the 20th and 21st centuries. *Nursing Science Quarterly, 12*, 311-318.
- Jang, S. O. (2005).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by the classification of knowing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206-212.
- Jeong, G. H., Ahn, Y. M., & Cho, D. S. (2005). Coincidence analysis of key word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with MeS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1420-1425.
- Kang, H. C. (2002). Analysis of statistical method appli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929-935.
- Mantzoukas, S. (2008). A review of evidence-based practice, nursing research and reflection: Levelling the hierarch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7*, 214-223.
- Mantzoukas, S. (2009). The research evidence published in high impact nursing journals between 2000 and 2006: 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 479-489.
- McEwen, M. (2007). Philosophy, science, and nursing. In W. McEwen & E. M. Melanie (Eds.), *Theoretical basis for nursing* (pp. 12-13). Philadelphia, PA: Lippincott-Williams and Wilkins.
- Morse, K. M. (2006). Reconceptualizing qualitative evidenc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6*, 415-422.
- Park, M. H. (2006).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Evidence Based Practice*. Seoul: Kunga Publishing Company.
- Park, Y. W., Lee, Y. W., Kim, O. S., & Cho, M. O. (2008).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 176-186.
- Peterson, S. J. (2009). Introduction to the nature of nursing knowledge. In S. J. Peterson & T. S. Bredow (Eds.), *Middle range theories* (pp. 35-36). Philadelphia, PA: Lippincott-Williams and Wilkins.
- Rahm-Hallberg, I. (2006). Challenges for future nursing research: Providing evidence for health-care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3*, 923-927.
- Rycroft-Malone, J. (2007). Theory and knowledge translation: Setting some coordinates. *Nursing Research, 56*(Suppl. 4), 78-85.
- Seers, K. (2007). Evaluating complex interventions. *World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4*(2), 67-68.
- Suh, Y. O., Park, J. S., Yang, J. H., Kim, H. W., Suk, M. H., Shin, H. S., et al. (2007).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1013-1019.
- Wallin, L. (2009). Knowledge translation and implementation research in nur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 576-587.
- Walker, W. (2005).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research designs involving quantitative measures. *Journal of Research in Nursing, 10*, 571-582.
- Webb, C. (2003). An analysis of recent publications in JCN: Sources, methods and topic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2*, 931-934.